

# 주목! 83세 노 스님의 법보시



나옹불교전도협회 사무국장 홍인 스님과 불자들이 전국의 교회시설에 보낼 <불교성전>을 포장하고 있다. <불교성전>은 매년 6만부씩 앞으로 30년동안 도서관, 호텔객실, 군부대 등에 보급된다.

## 내원암 능가 스님 '나옹불교전도협회' 설립하고 본격화

30년 전 삼보불교재단을 설립해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던 법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위 사진)이 '재나옹불교전도협회'를 설립하고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을 시작했다.

세수 83세인 능가 스님은 법화경을 읽은 인연으로 출가한 후 법어사 주지, 세계불교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해온 스님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으로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 있는 법어사의 어른.

4월 21일, 전국의 교도소 45곳과 청소년 교화소에 1만 여권이 처음 으로 발송되면서 (재)나옹 불교전도협회의 법보시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매년 6만부씩 30년 동안 각국 외국관, 대외도서관, 중·고교 도서관, 새마을문고, 주요 호텔객실, 군부대, 경찰관서, 언론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이는 대립과 투쟁, 흥망성쇠가 부단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개인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와 의무에서 출발했다고 능가 스님은 밝히고 있다.

삼보불교재단을 통해 평인들의 시력을 찾아주었던 능가 스님이 법보시를 통해 지혜의 눈을 열어주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지를 펼치게 됐다.

능가 스님 평생의 숙원사업인 법보시 운동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지난해

8월, 법보시 운동을 염두에 두고 불교 가르침을 담은 각국의 불서들을 검토해왔던 능가 스님은 최종적으로 '불교성전' 법보시를 결정했고 영문과, 일어와 교수와 함께 <불교성전>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편역하고 재구성하는데 꼬박 8개월을 매달렸다.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정, 재구성, 발행의 반복 끝에 <불교성전>이 발행됐다.

이 <불교성전>은 능가 스님이 법보시를 위해 재판집행 출판한 책으로, 방대하고 난해한 <불교성전>의 고전에서 발췌해 빠른 이해를 돕도록 재판집행했다. 불자는 물론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에게도 친

밀하게 읽힐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들을 위한 한영대역판도 나왔다.

한편 능가 스님의 자호를 따서 명명된 (재)나옹불교전도협회는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 외에도 <불교성전> 강좌, 불교강연회 등 불교 연구와 선양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내원암 주지 법상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한권의 책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법보시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서 법보시 운동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508-6779 후원계좌 121064-51-081308(농협 예금주 불교전도협회)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대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05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홍교 스님(범어사 전계대화상)을 전제사로 계가 설해진 이날 보제루와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2천여명의 대중들은 대승보살이 받아 지니는 십중대계, 사십팔경계를 차례차례 받아 지니며 계를 받아 지냈다.

홍교 스님은 "계는 깨달음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으니 불자들은 지계 정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 거제불교 전쟁 희생자 위령제



거제불교원웅회와 거제 재가불자연합회는 4월 17일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사진).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거제불교원웅회 회장 지연 스님, 김만성 거제 재가불자연합회 회장, 김한경 거제 시장을 비롯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희생됐던 모든 영령과 주병의 무주교혼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 열렸다.

지연 스님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 나가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청룡사, 환자·가족 위문공연

대구 남구에 위치한 작은 포교도량 청룡사(주지 보성)가 4월 15일 영남대학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쳤다.

청룡사 주지 보성스님과 신도 30여명은 떡과 음료를 준비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비춤, 바라춤 등 승무와 고전무,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민요 등을 공연했다.

청룡사는 신도가 100여가구에 불과한데도 매주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지역 어르신 무료관광, 경로잔치 등을 열고 있다. 또 지역 독거노인 5-6명에게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은혜사, 쌍거북바위 재조명

영천 은혜사(주지 법타)가 일제시대 당시 폭이 잘린 채 파괴되어 방치되다시피한 쌍거북바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위한 재조명작업을 펼치고 있다.

인근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은혜사 경내지에 방치되어 있던 쌍거북바위는 인근지

역의 상징적 예경물로 일본강점기 때 한국정신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교탄압과정에서 파괴됐다. 당시 은혜사 스님들과 인근 마을주민들은 쌍거북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 대나무를 심어 위장했으나 발각돼 한 마리는 목이 잘린 채 파괴됐으며, 다른 한 마리는 사라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배지선 기자

## 불국토, 의로서비스 연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종)와 부산여자대학(학장 정남이)은 4월 20일 부산여대 마린홀에서 지역사회복지 일환으로 '의로서비스 강화 2005 실버와 그린의 마추보는 세상'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혜종 스님, 부산광역시 윤용근 사회복지과장, 부산여자대학 김경성 기획실장 등 1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혜종 스님은 "부산여자대학의 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지지를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학협력체계가 원만히 이뤄져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보광사, 불치사리 친견·봉불식



최신남골시절을 갖춘 경주 보광사주지 석관가 4월 17일 불봉식과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했으며, 부처님 치아사리 이운식을 위해 스리랑카 비제야사리 대사와 아누라푸라 보리수나무 사찰의 스리니와사 스님 등 스리랑카 스님 7명이 동참했다.

보광사 주지 석관 스님은 "납골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입은 모두 사회로 환원하고, 도술천 추모관의 상당부분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 APEC 성공기원법회 봉행

대한불교총정협의회(대통령 지산)는 4월 18일 부산 유엔모지에서 '세계 인류평화와 APEC 성공을 위한 기원법회 및 위령수륙대제'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총정협의회 대동정 지산 스님, 도동정 혜초 스님, 장로이사 정각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 통도사 성보박물관 패블텐장 10월 10일까지

현존하는 조선시대 90여 패블텐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광염(光焰)의 물결을 배경으로 화면 중앙에 노사나불을 당당하게 부각시킨 첫 사례로 꼽히는 신원사 패블텐, 설법인의 당당한 표현과 뚜렷한 이목구비, 주변 권속들의 늘씬한 신체 비례, 가능한 전신을 드러낸 권속들 간의 공간배치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노사나 패블텐이 통도사성보박물관

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4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패블텐에서 열리는 신원사 패블텐 전시회는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전국의 패블텐 80여점을 40년의 계획으로 기획 전시하고 있는 패블텐전 중 13번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패블텐 전시에 앞서 15일 패블텐 특별전 개막식을 열었다.

천미희 기자



'천진불심' 연등축제 기간 홍보대사로 활약할 동자승 식발·수계식이 4월 22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식발식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가운데)과 10명의 동자승들이 봉사루 앞에서 '천진불심'을 드러냈다. 배지선 기자

## 불교 관광특구 지정 위한 첫 공청회

### 4월 21일 통도사 설법전서

양산시와 김양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산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 위한 공청회가 4월 21일 통도사(주지 현문)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오근섭 양산시장을 비롯 지역 주민 4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공청회는 김양수 의원의 불교관광특구 지정의 취지 설명에 이어 영산대 정무형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김양수 의원은 "전통사찰인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무형 교수는 "양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불교문화유산의 효율성 제고와 잠재력 개발이라는 면에서 불교문화관광특구의 기대효과가 높다"며 "관광자원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하고 불교문화 관광이라는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문 스님은 "양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규제 속에서 개발해야 하며 예산안 확보 방안까지 내놓아야 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 벌초작업, 사찰, 정원

# 새로운 파워 업그레이드 (무소음 벌초기)

# 강력한 파워 - 21세기 예초기

## 사찰주변 · 벌초 · 정원 · 공장주변 조경및 제초작업 해결

깨끗하게! 안전하게! 간편하게! 신속한작업

### 초강력 밧데리로 장시간작업가능

#### 21세기 예초기의 특징

- 강 력 한 파 워 : 모터 장착 (약 7000RPM)
- 충 분 한 작 업 시 간 : 고성능 강력한 파워밧데리로 1회 충전으로 장시간(3~4시간) 작업가능
- 안 전 한 작 업 : 안전망 부착, 돌이키는 것 방지
- 만 족 한 효 과 : 안전된 칼날로 부착 천다 다중 면도날 원리로 깨끗하게 마무리
- 저 령 한 유 지 비 용 : 충전식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음
- 간 편 한 후 대 이용 : 조립식으로 배낭에 넣어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이 쉬움
- 작 업 방 법 : 10미터 선으로 예초기 본체의 밧데리 연결해서 작업

■작업대상 : 사찰주변, 벌초, 정원, 공원, 잔디관리, 학교, 공장 주변 잡초관리, 산 관리

제조원 : 국산 에스아이테크 예초기사업부

전 문 및 상담전화 (031) 342-9696

\*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택배로 배달합니다

▶ 농협 : 110-12-470206 (예금주 : 김 양 금)

- 사찰주변 조경, 잡초제거!
- 벌초, 잔디 깎기에도 최고!
- 산 잡초관리 및 정원조경!
- 학교 화단 조경작업 최고!
- 공장 주변 잡초제거에도 최고!

### 대리점 조건

- ◆ 초도물량 500만원으로 창업가능
- ◆ 무점포 가능 차량소유하신분 우대
- ◆ 대리점지역 전남 충판, 전북 충판, 충청도 충판, 경상도 충판, 강원도 충판